

심혼을 토했던 거장들의 문학세계

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지음

고전에는 자기 시대의 물음 앞에서 고뇌했던 빼어난 정신의 산봉우리들이 장엄한 풍경을 이루고 있다. 신라 말기의 최치원부터 구한말의 황현까지 고전문학의 거장 19인의 문학적 성과와 의의를 되짚어본 이 책은 황폐한 시대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남북국시대 '문제적 개인'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삶 속에서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감싸안았던 최치원은 전환기 문학인의 고뇌와 좌절을 상징한다. 그는 자기 계층의 주객관적 여건을 바탕으로 하여 이념적, 종교적 종합을 피했고 한문학을 차원 높게 수용하여 발전시켰다고 평가받는다.

중세의 권위주의에 저항한 문인으로 거론된 교산 허균은 자유분방한 문학세계를 보여준 방외인의 문학전통을 이어받아 그로부터 개성의 문학시대가 열렸다고 자리매김된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매천 황현은 자주적 근대화와 민족감정을 대변한 지사적 문학인으로 기록된다.

소장·중견 연구자들의 학문적 역량이 결집된 이 책은 허황한 시대를 살아야 할 우리 문학과 문학인이 나아갈 바를 깨우쳐준다. 즉, 당대적 진실에 충실할 것, 그러나 결코 언어와의 싸움에 타협하지 말 것 등이 그것이다. <박천홍>

소명/A5신/542면/20,000원

빛바랜 사진같은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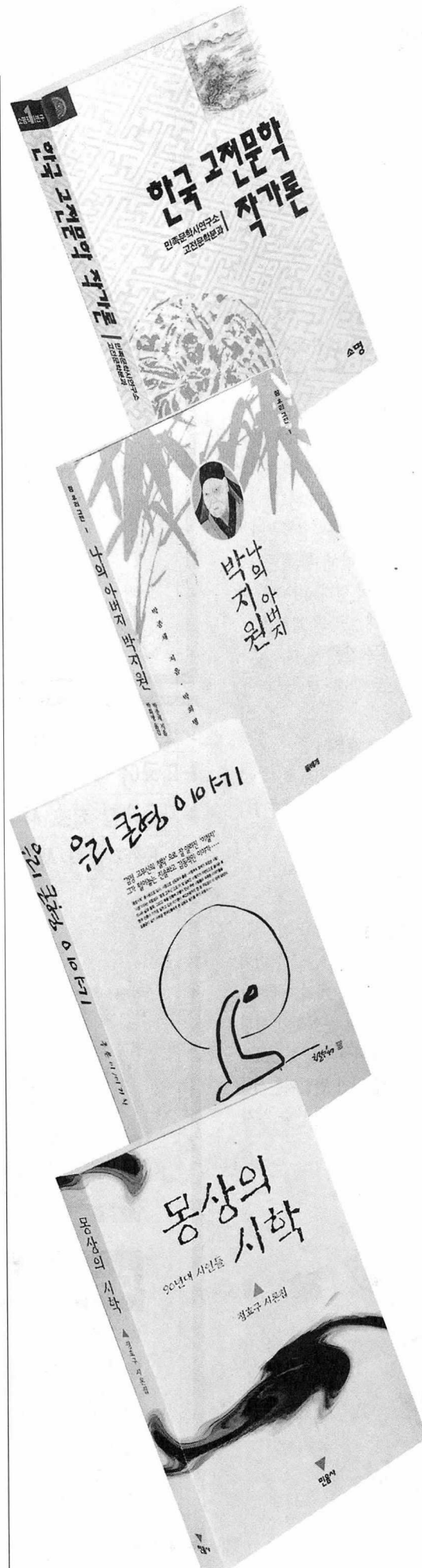
우리 큰형 이야기

이기환 지음

현대사의 질곡을 곧장 헤쳐나온 세대들은 이제 나이 지긋하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게다. 그러나 시대적 난마 위에 또다시 걸터앉게 되었으니 그들을 누가 위로하라. 그 몫은 아랫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이 에세이는 종로서적 사장이었던 이철지씨를 담담히 지켜본 동생이 쓴 개인사적 이야기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온 '형님'들의 공통된 노고가 담뿍 담겨 있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종로통 철학자 이철지씨의 삶의 궤적을 추적한다. 산에서 내려온 아버지에 대한 회상, 배고팠던 어린 시절의 속쓰림, 돈을 벌기 위해 월남전에 자원했던 청년기, 그리고 아내를 만나기까지 벌어지는 희극이 펼쳐진다. 종로서적에 입사한 뒤에 책도독 잡는 일로 시작하여 사장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개인적 철학을 돈워나가던 삶의 파편들이 빛바랜 사진처럼 펼쳐진다. '검정 고무신'은 그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던 기억의 화석이다. <오완진>

당그래/A5신/280면/8000원



호방한 선비의 언행과 가르침

나의 아버지 박지원

박종채 지음

동양의 전기문 중에는 '과정록' (過庭錄)이라는 형식이 있다. 이는 자식이 아버지의 언행과 가르침을 기록한 글을 일컫는다. 연암 박지원의 아들인 박종채가 쓴 <과정록>을 옮긴 이 책은 마치 옛날 사람이 감나무 잎에 글을 써서 항아리에 차곡차곡 모으듯 아버지의 언행을 모두 기록해놓았다(박희병 옮김).

"아버지께서 남기신 자취를 모아서 후세에게 전하고자" 쓴 이 책에는 박지원의 소상한 생애를 비롯하여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생활과 철학, 당대의 제도와 문물에 관한 기록이 오롯이 담겨 있다. 아울러 안의현감·양양부사로 재직했을 때의 일화도 담겨 있어 목민관으로서의 면모도 잘 드러나 있다.

"겉으로만 근엄하고 속마음은 그렇지 못한 지나 권력의 부침에 따라 아침하는 자들을 보면 참지 못하였"다고 연암의 일관된 대쪽기질을 들려주는가 하면, 안의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봉록을 털어서 백성들을 몸소 구휼했던 목민관의 모습도 담겨 있다.

호방하고 고매한 삶을 살았던 18세기 지성인의 고뇌와 철학이 섬세한 관찰자의 눈에 포착되어 있다. 부친에 대한 아들의 절절한 그리움도 문장 곳곳에 스며 있다. <박천홍>

돌베개/A5신/308면/9000원

세속도시에서 '무가치'한 꿈꾸기

몽상의 시학

정호구 지음

꿈꾼다는 것은 한없이 높이 오르거나 낮게 가라앉는 일이다. 하지만 경제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끊임없이 바꾸는 몽상은 무가치한 일로 여겨진다. 1990년대 들어 '시의 위기'란 말이 문단에 떠돌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송재학·안도현·이문재·허수경 등 17명의 시인들의 시를 한 평론가가 꼼꼼히 읽어 두꺼운 책을 냈다.

<몽상의 시학>이 말하는 바는 간단하다. 무가치해 보이는 '꿈꿀 권리'야말로 인간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숨결이라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 근거를 시기절 속에서 찾는다. 고재중의 시에서 생명의 논리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김영승의 시에서 세속의 논리를 거부하는 자유인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는 시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지만, 읽어주는 일도 쉽지만은 않다. '시의 위기'는 돌려 읽으면 '시 읽기의 위기'다. 이 책이 가진 미덕은 바로 이 '시 읽기의 위기'에 정면으로 반발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글쓴이가 김영승더러 한 '혼자서 멀리 간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는 의문은 고스란히 그에게로 되돌려지는 말이다. <김연수>

민음사/A5신/478면/15,000원

역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공간학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정재정 외 지음

지금은 규모가 줄어들어 무심히 지나치기 쉽지만, 장충단공원 하나만 봐도 우리 근대사의 발자취를 알 수 있다. 원래 장충단은 을미사변 당시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순국한 장병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곳인데, 일제는 이 곳에서도 히로부미를 기리는 박문사를 세워 '장충단공원'이라 했다. 또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가 대규모 유세를 한 곳도 여기고 이후 '체육관 선거'라는 이름이 붙게 된 간접선거가 이뤄진 곳도 인접한 장충체육관이다.

이 책은 서울 시내에 숨어 있는 이런 역사의 흔적을 찾아간다. 지금도 남아 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졌거나 사라진 흔적들을 되짚어보며 1백년 전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공간학을 펼친다. 공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역사는 반복되거나 모순된다. 김옥균의 집은 한때 성삼문이 살았던 그 자리고, 황제가 된 고종이 머물던 덕수궁에서 을사조약이 억지 체결되고 훗날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다. 공간으로 역사를 다룬 이 책은 이런 의미에서 가혹하다. 하지만 공간 개념을 끌고와 그 생생한 지형도를 통해 역사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대중 역사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펼쳤다. <김연수>

해안/A5신/400면/12,000원

독도의 역사, 객관적으로 분석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이진명 지음

서양인에 의한 울릉도와 독도의 발견, 두 섬이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서양의 지도에 올려지게 된 경위, 독도를 분명히 한국 영토로 분류한 동서양 지도, 수로지와 항해지침에 실린 두 섬에 대한 기술(묘사), 분류(두 섬의 관계), 명칭 변화 등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다섯 편의 논문과 시대별로 분류된 지도와 해도를 수록했다.

제1부 <독도를 찾은 서양 사람들> 편에는 서양인이 기술한 독도의 모습을 게재했다. 울릉도와 독도, 모도와 자도 관계, 울릉도와 독도·타케시마와 오키시마,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조치, 리앙쿠르 바위섬·타케시마·독도의 유래 등을 분석한다. '1787년 프랑스 라페루즈 탐험대의 울릉도 발견'을 통해 서양인이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기술했다. 제2부 <동서양의 지도 및 해도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편은 지도와 해도를 중점적으로 수록했다.

독도와 관련된 자료를 놓고 분석하지만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으며,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오완진>

삼인/B5변형/248면/23,000원

북녘 국토의 자생풍수 보고서

최창조의 북한 문화유적 답사기
최창조 지음

모란봉·을밀대·박연폭포·구월산·왕건릉... 이제는 애잔한 노래나 전설, 문학작품으로밖에 만나볼 수 없는 이름들이다. 일그러진 왕조체제의 잔영으로만 남아 있는 북한땅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풍수학자 최창조씨가 97년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 북한을 여행하면서 반쫓가리 우리 국토의 숨결을 더듬었다.

저자는 북녘의 유적들에서도 우리식 '자생풍수'의 흔적을 찾아낸다. 주위가 너무 협소한 왕건의 무덤에서는 어머니처럼 편안한 우리식 명당의 전형을 보고 대성산성의 우물터에서는 '땅의 이치'를 보는 조상들의 신기에 감탄하기도 한다.

북에서 만난 것은 지세와 유적만이 아니었다. 거기서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을 안내하는 사람에게 그의 아내가 "남조선 사람들이 무섭지 않아요?" 하더라는 말을 듣고 서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민족의 비극을 실감하기도 한다.

대단위 인공 기념물을 만들고 강줄기마다 감문을 만들어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부숴버린 현실을 보고 북녘에서도 인간중심의 자기욕심이 반복되고 있다는 감상을 토로한다. <박천홍>

중앙M&B/A5신/236면/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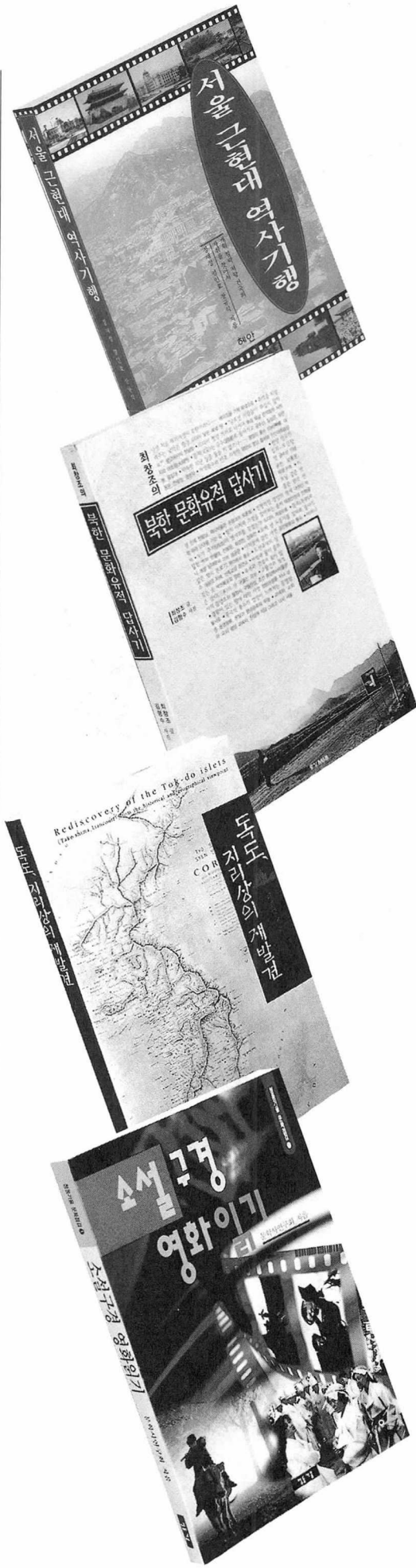
소설과 영화의 교차점 비교

소설구경 영화읽기
문학사연구회 지음

국내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 가운데 문제작을 골라 소설과 영화라는 각기 다른 장르의 특성과 매체간의 교차점을 비교한다.

먼저 도시·일상·욕망을 주제로 담은 소설 가운데 장정일의 <너에게 나를 보낸다>, 구효서의 <낮선 여름>, 하일지의 <경마장 가는 길>, 이순원의 <압구정동에는 비상구가 없다> 등을 영화와 비교한다. 소설의 틀을 깨고 영화로 변신한 모습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90년대 민주화 열망을 실은 역사의 중심이 무너지면서, 해체적 담론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장을 점유하는 것과 함께 욕망은 더욱 은밀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팽창하는 이중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사랑의 변주를 주제로 담고 있는 소설 가운데 신경숙의 <깊은 슬픔>,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박영환의 <우묵배미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해체와 소통 불능의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기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90년대 예술의 특징 중 하나인 여성적 글쓰기에서 현실적 삶과 밀착한 사랑의 건강성, 또는 진정한 여성성을 지닌 작품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점도 기술하고 있다. <오완진>

청동거울/A5신/314면/10,000원



회화에 근거한 루카치의 미메시스론

루카치 미학 연구
이주영 지음

예술과 현실의 관계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예술이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루카치 미학 연구》는 플라톤 이래의 이 난제를 통해 루카치의 미메시스론을 다룬다. 글쓴이는 루카치가 고전적 미메시스론을 어떻게 끌어들이며 '세계창조'의 개념으로까지 승화시켰는지 살펴본다.

결국 루카치가 말한 자율성은 '미적 미메시스' 과정을 통해 획득되는데, 그 결과 관념론 미학과 유물론 미학의 독창적인 종합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글쓴이는 그 근거를 회화에 바탕한 예술론에서 찾는다. 이제까지 문예론에 기초한 그의 급진적 예술론이 많이 알려졌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의외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두가지 사실을 제시한다. 먼저 루카치 미학의 단초가 고전 관념론 미학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다소 고전적·이상적이라는 사실. 또한 루카치의 현실관이 1950년대 전후의 헝가리라는 동구적 현실에서 씌어졌기 때문에 현재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김연수>

서광사/A5신/352면/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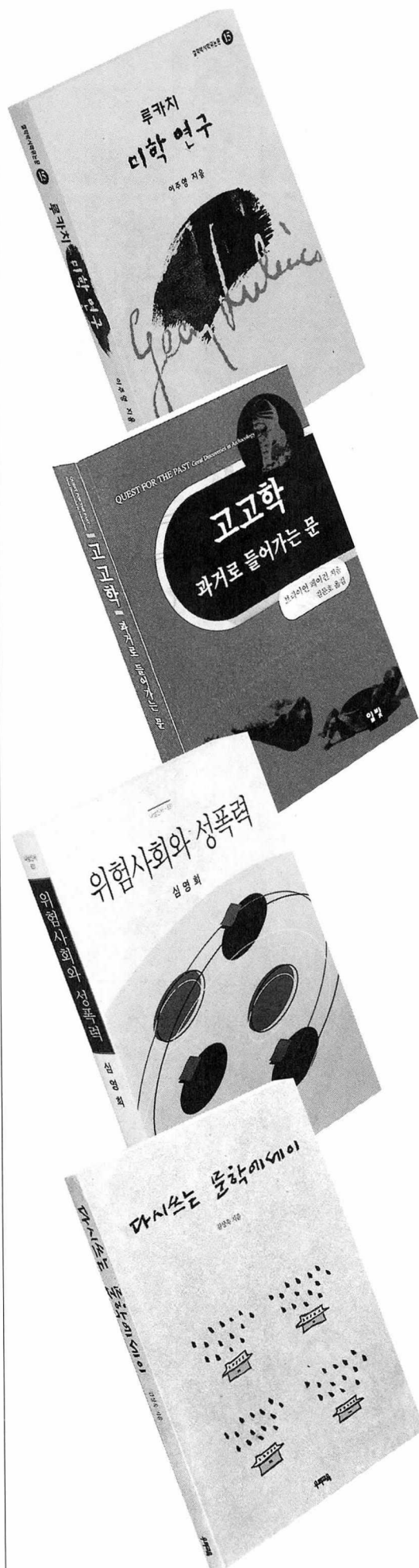
권력이론으로 분석한 성폭력

위험사회와 성폭력
심영희 지음

일상의 권력이론을 우리나라의 성폭력·성희롱 현상에 적용한 것으로 사회구조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성폭력 사례분석과 역사적 접근을 통해 의미를 이해하고, 성폭력의 맥락과 원인에 대해 보다 뚜렷한 인식의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 주며, 성폭력 예방에 대한 논의를 들려주고 있다.

<성폭력의 유형과 변화>을 분석한 논제는 위험한 사회와 성폭력, 새로운 성희롱 유형의 등장, 어린이 성폭력, 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더듬는다. <성폭력의 맥락과 원인>은 일상의 권력과 성폭력, 섹슈얼리티와 사회정의, 유교와 페미니즘의 성담론, 텔레비전과 성문화 등을 해설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과 대책>은 법적 차원에서 몸의 권리와 성 관련법의 개선안, 복지정책 차원에서 여성의 신체적 안전과 인간존엄을 위한 정책, 개인적 및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성적 피해 방지를 위한 성교육, 그리고 여성운동 차원에서 한국 페미니즘의 상황과 양성평등을 위한 모색 등을 역설한다. 부록으로 강간죄에 관한 법률, 성폭력 특별법, 서울대 우조교 사건 판결문 전문 등을 실었다. <오완진>

나남출판/A5신/476면/14,000원



고대를 향한 인간의 열정과 혁열

고고학, 과거로 들어가는 문
브라이언 페이건 지음

고고학은 순장되어버린 시간을 거슬러 인간과 문명의 숨결을 되찾는 작업이다. 삽과 솔의 원시적 도구부터 컴퓨터·위성·항공사진 등의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땅속에 잠긴 유물·유적들에 빛을 비춘다. 유명한 고고학자들의 고대에 대한 열정과 발굴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고고학이 호사가의 한가한 유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과학적 학문의 소산임을 밝힌다(김문호 옮김).

올두바이 계곡에서 초기 인간에 대한 연구로 평생 바친 리키 부부는 호미니드 유골 한 구를 발견해 인간의 기원을 175만년 전으로 끌어올렸다. 벤쿠버 섬 남쪽, 오제트 섬에서 산책하던 젊은 고고학자 리처드 도저티는 그곳이 고대의 고래잡이 마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굴을 시작해 마카족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고대 트로이의 전설을 사실로 증명한 솔리만, 니네베 왕릉을 발굴한 레이야드, 미노아 문명을 복원한 에반스 등 불멸의 고고학 영웅들의 이야기도 들려준다. 시간이라는 마법의 주술에서 깨어난 유물·유적들은 우리를 과거의 낭만적 시간 속으로 이끄는 작은 쪽문이었다. <박천홍>

일빛/A5신/422면/12,000원

가벼운 마음으로 문학 들여다보기

다시쓰는 문학에세이
김상욱 지음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배우는 것'이라고 프랑스의 언어학자 벤브니스트는 말했다. 언어가 가진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말이다. 그렇다면 언어로 이뤄진 문학 작품이 글쓴이의 이데올로기와 무관할 수 없다. <다시쓰는 문학에세이>는 이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는 우리 문학의 여러가지 모습을 살핀다.

그는 문학에서 삶을 반성적으로 돌이켜보는 거울을 찾아낸다. 그 거울 속에는 상상력, 총체성, 이데올로기를 담은 담론이 들어 있다. 이 세가지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살펴볼 때,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무거운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만, 말하는 방식은 그다지 엄숙하지 않다. 고희나 로트렉의 그림이나 글쓴이의 개인적인 이력을 넘나들면서 문학의 본질·짜임·양상 등을 다룬다. 각 작품의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방식도 일관되고 논리적이다. 여기에 이 책의 미덕이 있다.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 같은 딱딱한 이론 소개를 뒤로 돌리고 최승호의 시를 통한 상상력을 첫머리에 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김연수>

우리교육/A5신/238면/7000원